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3. 3 | Vol. 226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법왕사 만불전 · 본당

단집 조성 모연문



단집은 법당에 모신 불보살을 장엄하는 하나의 장치로 불상 위에 또 하나의 집을 지어 올린 것으로 마치 집을 겹쳐 지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단집이라 일컫습니다.

수천 조각의 목재를 정교하게 다듬어 짜 맞춘 극히 섬세하고 화려한 단집은 예부터 불전이나 궁전에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그 상징성과 의미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단집은 두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부처님 머리 위에 설치한 일종의 장엄구인 보개(寶蓋, 또는 天蓋)로서의 상징성이며, 다른 하나는 법당을 불국정토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단집은 불국정토의 궁전 모습을 본떠서 만든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법당에 단집을 조성함으로써 법당은 비로소 불국정토가 되며 불보살님의 위엄과 권위를 극대로 장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왕사에서는 큰법당 본존불 위에 단집을 조성하여 법당을 더욱 여법하게 조성할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각령단[覺靈壇] 조성



대한불교 조계종 대종사 원공당 정무 큰스님은 법왕사의 회주로 주석하시다가 지난 2011년 입적하셨습니다. 큰스님은 한국 현대 선불교의 대표적 선사인 전강스님의 법맥을 이으시고 이를 법왕사에 전해주신 분입니다.

법왕사에서는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정법 수행 풍토를 드높이고자 큰스님의 각령단을 본당에 조성코자 하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각령이란 입적한 고승(高僧)의 혼령(魂靈)을 높여 이르는 말로 진영을 봉안하여 단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04 깨침의 향기
치우침 없는 평상심이
바로 부처님 마음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8 비슬산방
정정(淸淨)한 마음자리가 곧 열반(涅槃)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만법은 오직 마음에서 비롯된다 · 본원스님
- 14 불교상징의 세계 VII
사찰의 중심, 금당(金堂) · 조명래
- 18 법회이야기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팔상성도(八相成道)
- 22 명찰순례
빼어난 절경과 어우러진 수도성지, 연화사
- 26 특집 / 화보
방생법회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 28 법왕사소식
- 30 법왕사게시판
- 32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수성 라 00017 | 발행처_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57(서기 2013)년 03월 01일 발행 | 통권 226호 | 종무소_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모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윤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치우침 없는 평상심이 바로 부처님 마음

원공당 정무 대종사



30년 전 우리 어머니들은 지금의 어머니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사셨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기, 즉 초심(初心)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순종(順從)
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순종이 아
니라 서로 서로에게 순종을 하다보
면 서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움까
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순종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 또 하나 필요한
것이 평상심(平常心)입니다. 평상심
이란 좋아하는 마음도 나빠하는 마
음도 아닙니다. 그냥 어진 마음, 착
한 마음 즉 본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평상심입니다. 늘 평상심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가도 끄떡없습니다.
무엇보다 부처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평상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못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질고 온전
한 마음에서 나쁜 마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 그리 심각한지 모두 움츠리
고 살고 있습니다. 조금하게 살고 있
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지 않
고 사회에서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행(修行)을 하는 것
도 평상심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봉사활동도 평상심으로 해야 합니
다. 자기 부모에게는 효도하지 않으
면서, 자기 부모는 내다버리면서 경
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목욕을 시키

면 뒤합니까? 이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 오직 자기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명예욕(名譽慾)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식모마음’, ‘머슴마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할 때, 마음에 자유가 찾아오고 권리가 생기고 공덕(功德)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기 임무를 완수하면 그 가정은 자연스레 화목해질 것입니다.

다음에는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평상심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망한 것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라가 망할 때도 그랬고 제정 러시아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놀부병에 걸린 사람 들입니다. 놀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임무는 뒷전이고 허세만 부립니다.

조선이 망한 것은 이런 놀부병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교 때문에, 양반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진정한 선비나 양반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본분(本分)을 다하고 체통(體統)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 돈을 주고 양반이 된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돈으로 현감이 되고 벼슬을 얻은 사람들은 실력도 없이 허세만 부렸습니다. 그런 허세 때문에 사회가 혼탁해지고 결국은 나라가 휘청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명예나 칭찬을 탐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자기 임무를 완수하면 명예나 칭찬은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내가 잘 난 덕’이라고 하면서 욕심을 내면

결국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임무는 완수하지 않으면서 명예만 찾는다면, 이진 폐가망신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이익을 냈지만 그 이익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면 자연스럽게 나의 명예는 올라가고 귀인(貴人)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스스로 올라하려고 하면 절대 높은 명예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임무도 완수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으면 안됩니다. 겸손하게 살면 그 주인은 바로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부르짖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올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굴신(屈伸)’을 잘해야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 굴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굽힐 굴’, ‘펼 신’ 즉 팔다리를 굽혔다고 폈다 한다는 뜻입니다. 다 함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봅시다. 주먹을 불끈 쥐고 손바닥을 짹 펼 수 있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몸도, 세포도, 근육도 이 운동을 잘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손바닥을 완전히 굽히고만 있는 사람은 병신입니다. 완전히 편 채로 살 수도 없습니다. 늘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이 우리 손바닥입니다. 이것이 건강의 증표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중도(中道)라야 건강한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만 해서는 안됩니다. 힘들게 번돈이라며 그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온몸을 움크리고 있으면 우리 몸은 결국 병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손바닥을, 근육을 열심히 굽혔다고 폈다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돈을 잘 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써는 것 즉 보시(布施)를 잘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늘 중도적인 삶을 살 때, 우리 몸은 건강하고 우리 가정은 화목하고 우리 사회는 건전할 것입니다.

청정(淸淨)한 마음자리가 곧 열반(涅槃)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 ● 음력 2월 15일은 부처님이 열반(涅槃)에 드신 날입니다. 우리 불교에 서는 부처님이 탄생하신 초파일과 2월 8일 출가일, 12월 8일 성도일, 2월 15일 열반일을 4대 명절로 기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는 전 과정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열반은 불도(佛道)의 궁극적인 경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것은 세속 용어로 말하자면 ‘죽었다’, ‘돌아가셨다’ 혹은 ‘서거(逝去)하셨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에서는 출가한 스님들이 이승의 인연이 다하여 몸을 버리고 가는 경우에 ‘열반하셨다’고 말합니다. ‘열반(涅槃)’은 범어의 ‘nirvana’를 음역(音譯)한 말로써 적멸(寂滅), 멸도(滅度), 해탈(解脫), 반열반(般涅槃), 대반열반(大般涅槃) 등을 뜻합니다. 이 열반의 원래 의미는 ‘불어서 끄다(吹滅)’ 또는 ‘불이 꺼진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중생에게 번뇌의 불꽃이 사라진 마음의 이상적인 경지를 비유해서 차용한 말입니다.

● ● 열반이라는 의미는 오랜 불교사에서 보면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함경』에서는 ‘탐욕(貪)을 영원히 끊고, 노여움(瞋)을 영원히 끊고, 어리석음(癡)을 영

원히 끊어 일체의 모든 번뇌를 끊은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탐진치 삼독(三毒) 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즉, 수행을 통해 마음의 때를 모두 소멸한 상태를 일컬어 열반이라고 하여 가장 소극적인 의미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 부파불교 시대에는 번뇌의 때는 끊었지만 번뇌를 일으키는 바탕인 육신이 아직 남아 있는 유여의열반(有餘依涅槃)과 번뇌는 물론이고 몸과 마음이 의지할 장소마저도 완전히 사라져 없어진 상태인 무여의열반(無餘依涅槃)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상(常), 락(樂), 아(我), 정(淨)의 열반 4덕을 진정한 열반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열반경』에서는 상(常), 항(恒), 안(安), 청정(淸淨), 불노(不老), 불사(不死), 무구(無垢), 쾌락(快樂)의 8미(八味)가 열반에 구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일러 자성청정열반(自性淸淨涅槃)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마음 자체는 번뇌나 지혜의 상대적인 경계에 물들지 않고 본래 고요하고 청정한 진여의 이체(理體)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식불교에서는 무주처열반(無

住處涅槃)이라 하여 어디에도 머무이 없는 것, 다시 말해 삶과 죽음 어디에도 안주함이 없는 상태, 궁극적으로 불도를 닦아서 완성하는 하나의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반이라고 표현되는 부처님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인 부처님께서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부처님은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연따라 모였다가 인연따라 흩어지는 육신에 집착이 강한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 부처님께서 육신을 버리는 열반을 통해 '헛된 육신을 벗어나서 진실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 우리는 부처님 열반일을 맞아 부처님께서 열반을 통해 중생들을 깨우친 바를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일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증득한 사람은 열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사니 열반이니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반은 증득할만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만 순간 순간 일어나는 번뇌를 돌이켜 청정한 마음 자리를 관(觀)한다면 그 상태가 열반인 것입니다.

만법은 오직 마음에서 비롯된다

본원스님 / 토굴 정진중



모든 대상(對象)을 여의면
분별하는 성품이 없으니
선이다 악이다 할 체성마저 없어진다.



사람의 마음을 사단(四端)으로 나누어 느끼는 감정을 칠정(七情)으로 파악, ‘이(理)와 기(氣)’의 문제로 다루면 새로운 개념의 철학인양, 성리학·주자학으로 이름 하면서, 조선왕조 오백년을 두고 치국의 대요(大要)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기실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을 뜻하는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을 덕목으로 한 수준에 불과하다.

훈고적인 사변(思辨)에 치우쳐 관념에만 사로잡힌 공론(空論)을 일삼은 소모성 논쟁의 명분을 살리는 말에 지나지 않는 가르침은, 『대학』에 나

오는 ‘...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구절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좋은 심성이 많은 복 불러

하지만 이 또한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으로, 몸을 닦고 집과 나라를 편하게 하는 근본은 제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부터라는, 결국 마음이 근본이 됨을 말한 것이다. 수시로 변하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가벼이 일어나는 마음의 동(動)함을 기질적 성향에 의한 바른 관점에서 제어하고 못하고,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하

는 자각과 분별력은 있되, 뜻에 따라 실천의지가 있고 없고의 의지를 나타내는 개개인의 심성이 지닌 기(氣)의 성질·성향이 인간 삶에 있어서 화복(禍福)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함이 도선국사가 전하는 ‘비기’에 드리워진 뜻이자 마음의 체성을 바탕으로 한 ‘심성론(心性論)’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부터 ‘복은 심성 따라 온다’고 하였다. 올바른 생각이 가지는 마음 즉 정사(正思)란, 자기가 생각하는 심리적 상

태가 정도(正道)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건전하고 밝으며 온전한 의식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 의사들도 ‘성격이 병을 만들고 키운다’면서 ‘기질적 성향을 따르는 성질·성격이 곧 운명’이라고 함에는 이미 아득히 오래전 불법(佛法)에 기초한 도선국사가 밝혀놓은 ‘기질적 성향론’을 뒷받침 하는 근거이기도 한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됨을 일찍이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설하신 바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 된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형체를 따르듯이

마음이 흔들리면 경박해져서
 가누기 어렵고 조종하기 어려운데
 현명한 자는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나니
 마치 활을 만드는 이가 화살을 곧게 만들 듯이

마음이 이미 안정되고
 언행 또한 바르면
 바른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깨닫게 되느니
 마음과 언행이 고요해지느니라.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는 수천년 세월을 두고 숱한 학자들이 저마다 보고 생각하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범속한 사유(思惟)를 바탕 삼은 두뇌기능의 작용’을 필요로 하는 탐구와 연구라는 명분으로 ‘앎을 인지하는 단순한 지식’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이는 유학이 가르치는 ‘격물치지(格物致知,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확실히 함)’나 기독교의 관상(觀想) 기도가 가지는 의미와도 같은 것이다. 때문에 사변에 치우치고 끝없는 논쟁만을 야기시키며 머리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식자들은 “그래도 사상적 견제의 폭이 가지는 다양성이 문화발전에 긍정적이질 않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시대에 따라 대도(大道, 불법)에 무지몽매한 정치권력의 세력이 통치의 수단으로 삼은 이데올로기적 지배 논리이지, 적어도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언제 어디서든 어김없이 통하는 진리는 아닌 것이다.

우리 사회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은 일견 놀라운 일이다. 따지고 보면 이 또한 실상과는 거리가 먼 길도는 교육방향·방식이 부처 불(佛)자를 가르치는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탓에 길들여진 무지한 소견이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악 발생

‘인간의 본성(本性)이 무엇이나?’는 원초적 명제(命題)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확고한 실상을 기반으로 한 실천 사상정립을 요구한다. 이는 바른 사유

방식과 행동방식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심적 근거가 된다.

인간 내면에 깃든 선악의 요소 중 상황과 조건에 따라 쉽게 악한 마음이 일어나거나 부추기는 기질적 요소는 선행과 수행으로서 선한 바탕으로 길들이고, 선을 부추기고 일으키



는 기질적 요소는 더욱 길러, 지선(至善)을 행하는 정도(正道)에 입각한 올바른 행실을 도모하는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함은 스스로 생각하는 바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반응하며 일어나는 심리적 상태가 선악의 심성(心性)이다. 즉 이 심성이 가지는 기질적 성향이 똑 같이 주어진 환경적 상황과 조건에서도 사람에 따라 선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악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점을 두고 부처님은 『능엄경』에서 ‘반법은 오직 마음을 근본으로 한 심성(心性)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놓으셨다.

여래가 항상 말하기를 “물질과 마음의 모든 인연과 마음에 따른 생각들과 모든 반연(攀緣, 속된 인연에 끌리는 것으로 원인을 도와서 결과를 맺게 함)되는 현상들이 오직 마음의 나

타남이라.”고 했다. 여래는 “밝은 성품이 미혹하여 무명(無明)이 되었고 물질과 망령된 생각이 섞이어서 생각과 형상을 지닌 몸이 되었으며, 모여진 연(緣)이 안으로 요동하고 밖으로 달아나 혼미하고 어지러운 줄이 되는데 이것을 심성(心性)이라고 하느니라.”고 설교했다.

“눈은 대상을 비출 뿐 보는 것은 마음이며

귀는 소리의 울림에 고막의 흔들림을 당할 뿐 듣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은 그것들에 의해 매순간 생사를 들락날락하고 있으니 들여놓지도 말고 내놓지도 말라.”

이는 자기 내면(內面) 세계의 직관(直觀)을 중시하는 선가(禪家)에서 마음의 작용을 탐구하는 의미 있는 구절로서 전해지는 투철한 자기 관조(觀照)의 뜻으로 쓰이는 명구이다.

각주 1) 유일신의 권능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신의 은총을 바라는, 이 관상기도는 본래 불교적 어원으로 그 뜻은, 일상의 실천적 관심을 이탈하여 순수한 이성 활동에 의해 예지적인 것을 인식하는 상태의 직관력을 뜻한다.



사찰의 중심, 금당(金堂)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금당(金堂)이란 본존불(本尊佛)을 봉안하는 가람의 중심 건물을 말한다. 대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大雄殿)을 뜻하지만, 비로자나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등 사찰에서 주불로 모시는 전각인 대적광전(大寂光殿), 무량수전(無量壽殿), 원통전(圓通殿) 등이 모두 금당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당은 가람배치의 중심으로 사찰내의 모든 건물은 금당을 기준으로 배치된다.

삼국유사에는 금당에 관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온다. 《만파식적(萬波息笛) 조》에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 감은사(感恩寺)를 창건한 기록에는 “금당 뜰아래에 동쪽을 향해서 구멍을 하나 뚫어두었으니 용이 절에 들어와서 돌아다니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낙산이대성(洛山二大聖) 조》에 의상대사가 낙산사(洛山寺) 홍련암(紅蓮菴)을 창건한 기록에는 “관음이 말한다. ‘좌상(座上)의 산마루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니, 그곳에 불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 법사가 듣고 굴에서 나오니 과연 대나무가 땅에서 솟아나왔다. 여기에 금당을 짓고 관음상을 만들어 모시니, 그 둥근 얼굴과 고운 바탕이 마치 천연적으로 생긴 것과 같았다.” 등과 같은 여러 기록을 미루어 볼 때 삼국시대부터 금당이란 명칭이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당이란 명칭은 금색(金色)의 본존불을 전각 내부에 안치한 것에서 유래했다 것과 전각을 금으로 칠한 것에서 유래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여러 경전에서는 부처님 몸에서 뿜어 나오는 금빛광명은 깨달음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연유하여 부처님을 금으로 장엄하고 또 부처님을 모신 전각을 금색으로 칠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부처님의 금빛광명은 깨달음의 지혜 상징

세계 여러 곳에서 금으로 칠한 건물을 찾아볼 수 있다.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 편잡 지방의 대표도시인 암리차르에 있는 시크교의 성지인 황금사원이 있고, 태국의 아유타야 지방에 있는 왓 프라시산켓 사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본래는 금을 입힌 황금 탑이었으나 미얀마 군이 불태우고 금을 가져가는 바람에 회색빛으로 남아있다.

또 서울 은평구 갈현동 삼각산 아래에 있는 수국사는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그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절로 정인사라 하였다. 그 뒤 숙종이 계비 인현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중수하는 등 왕실과 깊은 관련을

맺어온 사찰로 1995년에 신축한 법당에는 단청 대신 순금박지(純金箔紙)로 장엄하였다.

불상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가장 일찍이 편찬되었다고 하는 아함경에는 코삼비국의 우다야나왕이 향나무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조각했다고 전하는 것이 불상의 시초이다. 그러나 가장 오래되었다는 부다가야의 유적이거나 그 후에 만들어진 바르하트 대탑이나 산치대탑 등의 조각에서 불상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표현되어야 할 곳에는 불좌(佛座)·보리수(菩提樹)·불족적(佛足跡)·보륜(寶輪) 등이 상징적으로 조각되어 있을 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500년이 지나도록 불상을 조성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처님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여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여 감히 불상을 만들지 못하였다. 이러한 예는 기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초상(肖像)은 사용하지 않았고 예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새끼양이나 비둘기, 물고기, 포도나무, 조합문자 등으로 표현했던 것도 불상을 만들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유였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당시의 불제자들은 다만 부처님의 정신을 사모하고 따랐던 까닭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오랫동안 불상을 만들지 않았다. 이 시기를 불교미술사에서는 무불상 시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무불상 시대에 불제자들이 무엇을 예배대상으로 삼았을까?

불상은 부처님 열반 후 5백여 년 지나 조성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다비(荼毗)한 뒤에 나온 사리(舍利)이다. 부처님의 사리는 당시 마가다국을 비롯한 8개국 국왕의 요청에 따라 8등분하여 각기 자기나라에 가져가 탑을 세웠는데 이것이 불교에서 탑의 기원이 되었다.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탑은 부처님의 상징으로서 경배의 대상이 되었고, 후에 건립되는 사찰은 탑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두 번째는 금강보좌와 보리수 그리고 보륜과 불족적 등이다. 이러한 상징물은 불교 이전부터 있어왔던 인도의 고전적이고 성스러운 표상들로서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상징하였다.

이처럼 사리를 모신 탑과 금강보좌·보리수·불족적 등이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해 오다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500여 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불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근본불교의 정신이 약화되면서 불상을 조성하여도 신성모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불교의 교세가 커지면서 상징물보다는 보다 가시적인 대상을 신앙의 실체로 삼으려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최초의 불상은 그리스 신상(神像)의 영향을 받았던 인도의 서북부 간다라 지방과 고대 인도 미술의 전통을 계승했던 북부 마투라 지방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상은 탑과 함께 사찰의 중심이 되었고,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다.

금당과 탑을 중심으로 하는 가람배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구려에서는 주로 일탑삼금당(一塔三金堂)이라 하여 탑을 중심으로 금당 세 채가 둘러싸고 있는 형식의 가람이 많았다. 반면에, 백제에서는 주로 일탑일금당(一塔一金堂)이라 하여 탑과 금당이 일렬로 배치하였는데 익산 미륵사지의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일탑일금당이 세 군데 배치하는 삼원(三院) 방식을 채택하였다.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던 까닭에 황룡사지는 황룡사 구층탑을 금당 3채가 나란히 바라보는 형식으로 배치하였는데 이는 고구려의 일탑삼금당 형식이 변형된 예라 할 수 있다.

통일신라에서는 쌍탑가람식이라 하여 금당 앞에 동서에 탑 2기를 세우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불제자들의 신앙생활이 사리를 봉안했던 이전의 탑 중심에서 불상을 중심으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오늘날에도 금당은 가람배치의 중심에 있다. 금당 앞에는 탑과 석등, 배례석(拜禮石) 등이 있었고 근처에 범종(梵鐘), 법고(法鼓), 운판(雲版), 목어(木魚)와 같은 불전사물을 모아둔 종루와 요사채를 비롯한 여러 전각들이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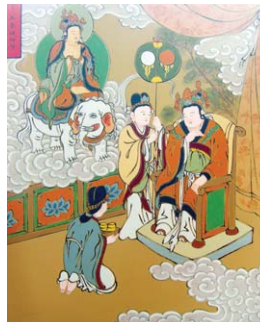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팔상성도(八相成道)

팔상성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장면으로 나타내어 표현한 그림을 말한다. 특히 불교의 4대 명절에 속하는 부처님 출가재일(음력 2월 8일)과 열반재일(음력 2월 15일)은 부처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계기가 된 날로 매년 음력 이맘 때이면 정진대법회를 봉행한다.

이에 법왕사에서 3월 19일(음력 2월 8일) 부처님 출가재일에 입재하여 26일 열반재일에 회향하는 팔상성도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에 앞서 부처님의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일생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본다.

○○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수메다라는 수행자가 연등부처님이 출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이 기회에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리라 깊이 다짐을 하



며 연등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 하였으나 공양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때 한 여인이 들고 있는 꽃

일곱 송이를 간청해 산 수메다는 그 꽃을 연등부처님께 바쳤고 부처님께서 수메다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마음을 중생들에게 보이기 위해 대중이 바친 꽃을 허공에 띄우게 하셨다.

그때 마침 연등부처님과 제자들이 지나는 길에 진흙 웅덩이가 있는 것을 본 수메다는 진흙 웅덩이 위로 자신의 머리를 풀어 엮리며 언젠가 자신도 지금의 연등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리라 다짐하였다.

○○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흰 코끼리가 태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을 한 마야 부인은 달이 차서 출산할 때가 되자 고향인 테바다

하로 향한다. 도중에 위치한 룸비니 동산에 이르러 마야 부인은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아무런 고통이나 상처를 받지 않고 사카족의 왕자를 낳게 되니 이 날이 음력 4월 8일이었다.

이 아기는 낳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存)’이라 외쳤다. 정반왕은 태자의 이름을 고타마 싯달타라 지었다. 태자가 태어나자 나라에는 땅이 편편해지고 마른 나무에 꽃과 잎이 피어나는 등 서른두 가지의 좋은 조짐이 나타났다.

○○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12세 되던 어느 봄날, 태자가 부왕과 함께 농경제에 참석하였다. 그때 태자는 일제 치친 고단한 농부들의 모습, 채찍을 맞아 피를 흐리는 소의 모습 그리고 흙 속에 꿈틀대는 벌레를 쫓아먹는 새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의문을 품게 된다. 그 의문을 해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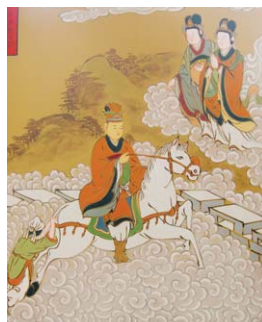


위해 염부나무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들었다. 이를 지켜본 정반왕은 태자를 세상과 더욱 멀어지게 해야겠

다고 생각하였으나 태자의 가슴 속에 자리한 고뇌는 깊어만 갔다.

성년이 된 태자는 어느 날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몰래 성문 밖으로 유람을 나섰다. 그리고 동문, 서문, 남문에서 각각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보게 되었고 생명을 가진 어떤 것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번민하던 태자는 다음날 북문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출가 수행중인 사문을 만나게 되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출가 수행자에게서 찾게 되었다.

○○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싯달타의 나이 스물아홉이 되던 해에 아들 라훌라가 태어났고 태자는 모든 사람이 잠든 한밤중에 마부

찬타카를 깨워 애마인 칸타카를 타고 카필

라 성벽을 뛰어넘어 동쪽을 향하여 달렸다. 왕궁이 멀어지자 태자는 말과 마부를 돌려 보내고 사냥꾼의 옷을 바꿔 입고 스스로 머리와 수염을 깎은 뒤 드디어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당시 이미 높은 명성을 얻고 있던 아라라 칼라마와 옷다가 라마뿔타 등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싯달타는 곧 스승과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그는 스승들에게서 만족할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산림에 들어가 6년간의 엄격한 고행생활에 들어간다.

○○ 설산고행상(雪山苦行相)



너무 엄격한 고행에 몸이 쇠약해져 죽음 직전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6년의 고행에도 부처님은

아무런 문제의 해결도 얻지 못한다. 하지만 극단적인 고행이 도리어 인간의 육신을 피로하게 하여 수행에 방해가 됨을 간파하고 과감하게 고행을 포기하게 된다.

기나긴 고행으로 노쇠한 부처님은 우루벨라의 네란자라강에서 목욕을 단정히 한 뒤 목녀 수자타가 주는 우유죽을 얻어 마신

뒤, 보리수 아래 길상초를 깔고 깊은 명상에 잠긴다.

○○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마왕 피순은 궁전에서 잠을 자다가 자신의 왕국이 모두 무너지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깬다.

그 원인이 바로

수행자 싯달타가 곧 정각을 성취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임을 안 그는 자신의 세 딸을 보내 부처님을 유혹하는 등 온갖 계교를 부려 방해하려 했지만 실패한다.

이에 화가 난 마왕은 대군을 이끌고 부처님을 공격하지만 그의 위력 앞에 항복하고 만다. 모든 마왕의 항복을 받은 싯달타는 드디어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크나큰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셨다. 이때가 부처님이 35세 되던 해인 음력 12월 8일 성도절이다.

○○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탐욕에 허덕이는 중생을 지혜의 길로 이끌기 위해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로 결심하신 부처님은 우선 자신이 지난날 배움을 받았던 아라라 칼라마와 옷다가 라마뿔타



에게 법을 설하려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이에 앞서 함께 고행수도를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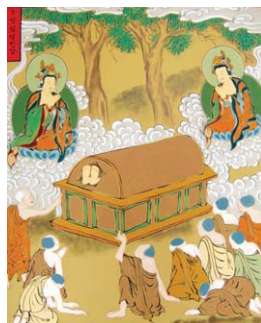
던 다섯 수행자가 있던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가 그들에게 설법을 시작하였다. 이 설법을 부처님이 행한 최초의 설법이라 하여 초전법륜(初轉法輪)이라고 한다.

얼마 후, 아사라는 청년과 그의 친구들이 출가하였고 이들을 찾으러 왔던 아사의 부모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또 당시 가장 이름 있는 종교가였던 가섭 삼형제에게 가르침을 설해 그들과 그들의 제자들을 받아들였다. 또 빔비사라왕은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퍼실 수 있는 사원을 마련해 주었는데, 바로 이것이 최초의 사원인 죽림정사이다.

몇 년 후 부처님께서는 고향인 카필라국에서 부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설하셨다. 이때 10대 제자인 아난과 라홀라, 아나율, 우팔리 등이 출가하였다.

● ●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80세에 이른 부처님은 마이살리 근처의 죽림촌에서 아난다와 단둘이서 최후의 우안



거를 지내게 되는데, 이 우안 거에서 부처님은 매우 위독한 병에 걸린다. 부처님은 이 고통을 참고 견뎌

내지만 근심한 아난다는 부처님의 별세 후에 무엇에 의지해야 할 것인가를 묻게 되고 이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바로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유명한 부처님의 열반유훈이다.

자신의 입멸이 가까이왔음을 안 부처님은 마이살리 근처의 모든 비구를 모아놓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뒤, 구시나가라로 최후의 여행을 떠나게 된다.

부처님은 고통을 참으며 아난다와 함께 구시나가라에 이르러 사라나무 숲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고 오른쪽 옆구리를 아래로 두고 발 위에 발을 포갠 자세를 취한 다음, 선정에 든 채로 열반에 들었다. 이날이 음력 2월 15일로 열반제일이다.



배어난 절경과 어우러진 수도성지, 연화도 연화사

통영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남쪽으로 들어가면 ‘환상의 섬 연화도’라는 돌비석이 반긴다. 연꽃과 흡사하다고 연화도로 이름 붙여진 이곳은 사명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곳으로 불교와 관련해 많은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섬의 한가운데 있는 연화사는 1998년 8월에 쌍계사 조실스님이신 고산스님께서 창건한 관음도량이다. 연화사는 대지면적 1,300여평 건평 120평의 사찰로 대웅전, 미륵불, 3각9층 석탑, 요사채 2동, 진신사리비, 연화사창건비 등 섬의 크기에 비해서 규모가 꽤 큰 사찰이다.

연화사 창건주이신 고산스님은 1934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나 1945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법륜사, 조계사, 은혜사, 쌍계사 주지를 거쳐 1991년 쌍계사 조실로 추대되었으며, 제29대 조계종 총무원장, 초대 호계원장, 중앙승가대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2006년 조계종 원로회의 원로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고산스님은 연화사뿐만 아니라 석왕사, 해원정사 등을 창건하실 정도로 불사에 남다른 원력을 보이신 분이다.

연화사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5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산군의 억불정책으로 한양에서 이곳 섬으로 피신해온 도인이 제자 3명과 함께 연화봉 암자 아래에서 부처님 대신 전래석(동근돌)을 모셔놓고 예불을 올리며 수행하다가 깨우침을 얻어 도인이 되셨다고 한다.

도인은 돌아가실 때 ‘나를 바다에 수장시켜 달라’고 유언하였다. 이에 제자들과 섬 주민들이 도인을 바다에 수장하니 그곳에서 커다란 연못이 떠올라와 승천하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섬이름을 연화도(蓮花島)라고 하였고 돌아가신 스님도 연꽃(연화)도인이라 하였다.

그후 사명대사께서 이 섬으로 들어와서 토

굴 밑에 움막을 지으시고 대해탈의 원을 세우고서 정진하던 중 마침내 큰 깨달음을 이루셨다. 얼마 후 사명대사를 찾아 연화도에 들어온 세 여인을 출가시켰으니 바로 보운, 보련, 보월이다. 세분의 비구니는 사명대사의 누이동생인 보운, 대사를 짝사랑하다가 비구니가 된 보월, 대사가 출가하기 전에 정혼했던 보련이다.

임진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자, 사명대사는 육지에서 승군을 일으켜 왜군을 물리쳤으며 바다에서는 보운, 보련, 보월 등 세분의 비구니 스님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왜군과 대적하여 승승장구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이 세분 스님을 자운대사라고 불렀다고 하며 이 세분 스님들이 거북선 도면을 이순신 장군께 전수하였다고 전해진다.

연화도는 바다에 핀 연꽃이라는 뜻이다. 북쪽 바다에서 바라보는 섬의 형상은 꽃잎이 하나둘씩 떨어진 연꽃 같다. 연화포구를 둘러싼 사방이 기암절벽으로 형성되어 있다. 동쪽에 있는, 용이 불을 뿜으면서 큰 바다를 향해 헤엄쳐 나가는 형상인 용머리는 빼어난 절경 중에 하나이다. 통영 8경 중에 하나인 용머리 혹은 네바위섬이라 불리는 이곳은 금강산의 만물상을 연상시키는 바위들의 군상이 불만하다. 연화도의 최고봉은 섬 남쪽에 있는 연화봉(212m)이다. 연화봉



① 해수관음상과 통영 8경 중에 하나인 용머리 바위 ② 9층석탑 ③ 2층에 종각이 있는 천왕문

을 오르다보면 ‘돼지목’으로 불리는 협곡을 있는 44m 길이의 출렁다리를 만난다. 이곳을 지나 정상에 오르면 사방에 펼쳐진 바다와 기암괴석으로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연화봉을 내려오는 길에는 연화도 전설의 주인공이기도 한 연화대사와 사명대사가 도를 닦았다는 토굴을 만나게 된다.

연화도 동쪽 해안에는 해식애가 발달되어 있으며 서쪽으로는 뜻을 달고 가는 배의 형상을 닮은 촛대바위가 있다. 동백나무와 풍란이 자생하고 있는 연화도는 계절에 따라 봄에는 여러 가지 나뭇잎이 있고, 가을에는 바위틈으로 여기저기 보이는 억새, 여름이면 참돔이 많이 잡혀 낚시꾼들에게도 최고의 인기 섬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연화도는 트레킹 코스로도 유명해지고 있다. 여객선터미널에서 연화봉, 보덕암, 용머리를 거쳐 다시 여객선터미널로 오는 코스는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통영항에서 출

발하는 정기여객선이 운항되고 있어 해상 교통편 또한 편리한 편이다..

연화도에는 빼어난 경관과 함께 연화도사가 수도했다는 서낭당(실리암)과 도승들이 부처처럼 모셨다는 전래석(둥근 돌), 그리고 연화도인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는 비석이 산신각에 보존되어 있는 등 불교유물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순신장군과 사명대사, 자운선사에 얽힌 전설이 역사적인 사실로 밝혀져 불교계의 중요한 유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연화도는 남북으로 1.5km, 동서로 3.5km 작은 섬이지만 연화대사와 사명대사의 수도성지로 알려진 연화사와 보덕암이 있어 매년 수많은 불교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불교성지이다.

연화사 이동법회 안내

일시 : 4월 4일(음력 2월 24일)

출발 : 오전 7시 30분 법왕사

차량 인원 관계로 미리 접수 받습니다.

문의 : 법왕사 증무소 053)766-3747, 9088

연화사 가는 길

대중교통 통영시외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도남동, 봉평동 방면 승차) → 서호동 비치호텔 앞 하차 → 여객선터미널까지 도보로 5분 정도 소요 → 여객선 이용 / 통영시외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산양 삼덕 방면 승차) → 산양읍 삼덕항 하차 → 여객선 이용 **승용차** 구마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거쳐 통영-대전간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통영IC에서 내려 통영시 원문검문소를 지나 시내간선도로 지나 여객선터미널에서 여객선 이용



방생법회

법왕사에서는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초 7일간 기도를 회향하고 지난 2월 19일 여수 선상방생법회와 향일암 참배를 하였습니다.

200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방생법회에서는 여수 돌산대교 아래에서 대형 유람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법회와 함께 소원지를 불사르고 거북을 바다에 방생하여 계사년 한해의 무사무탈을 기원하였습니다.

- ① 선상법회에서 기도를 올리는 불자들
- ② 법회를 집전하는 실상 주지스님과 법왕사 스님들
- ③ 선상법회 진행 장면
- ④ 거북을 들고 한 해 소망을 간절히 기원하는 불자
- ⑤ 방생법회 후 참배한 향일암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법왕사에서는 지난 2월 24일 계사년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법왕사 복지관 앞 광장에서 소원성취 기도법회와 함께 달집 태우기 행사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불자들이와 시민 3백여명이 동참하여 둘레 30m, 높이 15m의 거대한 달집을 태우며 소원성취를 기원하였습니다.

- ❶ 불자들이 정성들여 밝힌 소원등
- ❷ 법왕사 복지관 앞 광장에 설치한 대형 달집
- ❸ 행사 중간에 펼쳐진 살풀이 춤 공연
- ❹ 법왕사를 배경으로 거세게 타오르는 달집
- ❺ 달을 향해 기도하는 주지 실상스님



법왕사 소식

팔상성도 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3월 19일(음 2월 8일) 부처님 출가재일을 시작으로 26일 열반재일(음 2월 15일)까지 8일 동안 팔상성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개의 큰 주제로 나는 팔상성도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나서서 열반에 드시기까지 중생구제를 위해 보이신 모든 행적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안 계시더라도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남기셨듯이 우리 불자들은 더욱 발심, 수행정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4월 19일 제24회 백고좌법회 입재



제24회 백고좌법회가 오는 4월 19일(음력 3월 10일 신장재일) 입재하여 7월 7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됩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백고좌법회에서는 불교경전 전반을 아우르는 '경율론 삼장 대법회'로 전국의 고승대덕 100여분을 모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간 법회를 열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초청하고 싶은 스님들을 적극 추천하시면 법사로 모실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연화사 이동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4월 4일 경남 통영 연화사의 관음도량 연화사 이동법회를 봉행합니다. 연화사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큰스님께서 창건하신 도량으로 연화도의 빼어난 풍광과 잘 어우러진 관음도량입니다. 이번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입춘 맞이 항일암 선상방생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2월 19일 여수 돌산대교 아래 바다에서 선상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이어 항일암을 참배하였습니다. 이번 방생법회에는 2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대형 유람선에서 1시간 30분 동안 법회를 봉행하고 바다가 거북을 방생하고 소원지를 태우며 계사년 한해 무사무탈을 기원하였습니다.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봉행



법왕사는 지난 2월 24일 정월 대보름에 법왕사 광장에서 불자와 시민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달집태우기 및 소원성취기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둘레 30m, 높이 15m의 대형 달집에 소원지를 걸고 앞에는 소원등을 밝히고, 소원 성취를 기원하고 액난소멸을 발원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도중에는 살풀이춤 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더욱 돋구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 경내 식수행사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경내에 은행나무 50그루를 식수합니다. 묘목은 불자들의 보시로 총당할 예정인데 한 그루당

법왕사 소식

10만원입니다. 도량을 가꾸고 꾸미는 일 또한 공덕이 무량하며 불보살님의 가피에 보답하는 일이므로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화교실 신학기 무료강좌 개최



법왕사에서는 2013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문화교실 강좌로 요리, 다도, 꽃꽂이, 풍수지리, 참선반, 합창단, 사물놀이 등의 강좌를 개설합니다. 여가선용과 함께 교양증진, 취미생활이 자 수행의 한 방편인 법왕사 문화강좌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시민선방 입방자 모집중



법왕사에서는 시민 누구나 동참하여 참선수행을 하는 시민선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통 간화선 수행을 하고 싶은 불자님들은 언제든지 동참하시어 수행 경력이 풍부한 스님과 재가불자들과 함께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선방 개설 시간은 추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불교대학 초중급 주야간 모집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법왕 불교대학에서는 초중급 과정 주야간반을 모집합니다. 현재 중급반은 해능스님의 입보살행론

강의가 진행 중이며 초급반은 기초교리, 사찰예절, 기초경전 등을 주지스님 직강으로 개설하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매월 양력 초하루 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계사년을 맞이하여 매월 양력 초하루, 음력 초하루 법회를 봉행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중에서는 음력을 기준으로 불공을 올리고 법회를 해왔는데 현대사회에 맞게 양력 초하루에도 법회를 봉행하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04위 만불전 신중탱화 불사



법왕사는 만불전 뒤편 104위 신중탱화 불사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봉안예정이며 현재 접수중입니다. 신중탱화는 특별히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큰 공덕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학부모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청송 메주 판매, 1kg당 2만원



법왕사에서는 청정지역 청송에서 재배한 순 우리 콩을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발효한 최고의 친환경 식품인 법왕사 메주를 1kg 기준 2만원에 판매하오니 장 담그기 철을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법왕사 게시판

● 새법우 명단

수성구 최현무 허태옥 최자은 최영은 곽문수
 김영희 곽재혁 곽지영 정보영 곽지은
 정서연 이희로 권정화 이영호 권주영
 이태화 이준목 이진경 이주향 이재홍
 최덕수 우주연 최혜연 최아영 최지영
 안준영 이주애 안효창

경기도 정대희 이영애 정재엽 정애담

법왕사의 새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복덕이 넘치는 신행생활 하시기 기원합니다.

● 새롭게 평생위패 모신 분

간자모 평산유인 신공 상계 영가(조성우 복위)
 간엄부 광주후인 이공 수익 영가(이현석 복위)
 간엄부 청도후인 김공 문열 영가(김정순 복위)
 간자모 안동유인 권氏 선오 영가(김재승 복위)
 간엄부 동주후인 최공 도섭 영가(최재승 복위)
 간엄부 개성후인 고공 진환 영가(고재명 복위)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대작불사 도움주신 분

최민우 100만원 오광진 100만원
 양문갑 1,000만원 권오삼 1,100만원
 이상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본당 운각 불사 동참하신 분

김성훈 이상훈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여법한
 도량을 장엄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 새롭게 산신인등 모신 분

492 안준영 493 이주애 494 안효창
 511 조영호 512 조석호 513 조동호
 514 장시은 515 김종태

하나의 인등이 세상을 밝힙니다. 정성이 담긴 등을
 밝혀 지혜, 복덕, 수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새롭게 법당인등 모신 분

750 권기정 751 권나연

하나의 인등이 세상을 밝힙니다. 정성이 담긴 등을
 밝혀 지혜, 복덕, 수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새롭게 법당 일년등 다신 분

117 이우호 118 김창월 119 장백련화 120 김주택
 121 최유자 122 이명우 123 배재훈 124 공기연
 125 한선동 126 강운섭 127 강기화 128 최재용
 129 손외진 130 김상한 131 김영홍 133 장사익
 134 황치구 135 박동숙 136 최병일 137 박재근
 138 문백련화 139 박성홍 140 이순석 141 노동근
 142 송홍점 143 박진태 144 서복만 145 손윤희
 146 성민재동차 147 김태익 148 임창호 149 임인한
 150 임재현 151 이유태 152 강소남 153 한순복
 154 전삼수 155 김기석 156 김수식 157 김호택
 158 이화래 159 석종세 160 장미야 161 조정호
 162 이호찬 163 손종연 164 권무길 165 박종연
 166 정태진 167 조월포 168 도대록 169 박성현
 170 홍순영 171 홍권표 172 홍지수 173 홍정표
 174 채종달 175 김명숙 176 정진호 177 까치제과
 178 박철규 179 박해일 180 이갑수 181 정진화
 182 안병목 183 김성기 184 황보일 185 신정순
 186 손유호 187 송대호 188 장순남 189 김영진
 190 조규철 191 황병진 192 김득기

하나의 인등이 세상을 밝힙니다. 정성이 담긴 등을
 밝혀 지혜, 복덕, 수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법당 꽃등 다신 분

김우경 김경희 심보현 유성종

● 본당 일년등 다신 분

우종원 김종열 송승호 박진근

● 본당 각령단 동참하신 분

구실상화 신현수

● 생일축원

김상희

● 팔각대등 다신 분

민병철 권오삼 최대일 이기서 성진경
 이정상 경북신경외과 지오씨엔아이
 경일신경과내과 조병완치과 등내과
 정형외과 세광하이테크 세광금속 (주)
 보광직물 남경정공 청백다레원

법왕사 게시판

보름 대중공양

김기수	이정상	전옥남	이욱진	이미향
이민정	이승엽	이승아	이인숙	서미경
박경훈	박동근	조철제		

정초방생대중공양

이정상	전옥남	이욱진	이도윤	이나경
이승엽	이승아	엄영모	황병희	전희진
신정욱	박종성	심규암	조준승	황미선
류운만	오진환	정진욱	김영국	이종량
이점례	이세정	김정석	박진오	김지열
신승일	배해동	조철제	문국연	황춘연
이정화	도대륙	김영홍	이지송	심해정
김기수	구실상화			

복지관 3층 만불전 운각 불사 동참자

정재우	정여근	반재부	배해동	이승재
박영송	신중호	천종철	권정화	이태화
이대각	이준목	이영호	한김은조	영가

축하드립니다

- ◎ 김오현 법우님의 장남 김재훈님과 최육식 신태숙 법우님의 차녀 최은경님의 결혼식이 2월 2일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전통혼례장에서 있었습니다.
- ◎ 양혜영 법우님의 전문의 시험합격을 축하드립니다.
- ◎ 정민경 법우님의 임용고시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만불전 104위 신중탱화 설판제자

이정상	전옥남	이욱진	이도윤	이나경
이승엽	이승아			
- 동참하신 분				
박해진	백월순	박종성	나은정	강호진
박연정	강태우	강지연	박경훈	박수정
박도현	김무성	박경원	김도영	배해동
박분남	함지훈	문수명	이종석	이현국
이현석	김상철	최재훈	최윤재	이은미
신천시	신동혁	신애주	임종완	김보영
임수빈	임승우	권창욱	권창모	강우수
강우수	강석호	강성호	김종황	신범해
신지인	신명균	구실상화	신승훈	문서은

신민경	신유림	신현수	김진숙	신창희
신나현	강학철	신명재	강대범	강대중
신격기	권연실화	신중백	신중택	김영란
신혜정	신호정	서정익	임인한	김기봉
박말순	장영원	장영환	이세정	정돈
정국영	정시영	정영미	박경영	유명옥
박진오	박인정	최금부	김성훈	강석윤
백혜영	강지원	강동한	백상현	백승열
백인혁	백인수	김순자	박대희	정효교
권영란	정정교	박신자	김옥숙	정지현
정중홍	정재훈	정현		

감사드립니다

- ◎ 돼지저금통 회향하신 분
홍공덕심 김주석 윤광덕학 오희태
- ◎ 공양미 보시하신 분
정민경 김옥희 김동건 김경원 정돈
정국영 정시영 정영미 김기효 김경원
정효교 한김선녀 박종성 박경훈 김외환
김연경 김주현 조성민 조재원 이대각
윤재웅 이상동 이지영 심규암 김수만
한서영호 김이호 장용선 박태숙 이지송
홍순영 이대각 조재원
- ◎ 과일 공양하신 분
이정상 전옥남
- ◎ 떡 공양하신 분
정재왕 류주연 정영미 조태금 김남두
장재혁 정돈 부창떡집
- ◎ 물품 보시하신 분
유성종 정민경 권혁일 백상현
- ◎ 한과 보시하신 분
한유경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사보 도움 주신 분

최태희 50부	정용수 100부	최옥남 300부
김상수 200부	배용철 100부	김정호 500부
합창단 100부	이임숙 200부	참선방 200부
박해진 100부	이재학 50부	정원전설 300부
홍공덕심 100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법왕사 게시판

CMS 접수하신 분(2/5~2/25)

한평불사	김의환 2만원	백춘자 5만원
	서필희 1만원	
인 등	강춘희 2만원	김명신 2만5천원
	김명숙 1만5천원	김분용 2만원
	김영희 2만원	노경정 2만원
	류윤희 1만5천원	서상태 2만원
	신인숙 5천원	신정욱 4만5천원
	오창희 1만원	이숙희 1만5천원
	이숙희 2만원	이승일 2만원
	전재필 5천원	전재호 1만원
	정순희 2만원	최인겸 1만원
	한천숙 1만원	홍경숙 1만원
	황국희 2만5천원	
초하류, 축원	박정순 2만원	송순분 2만원
	김수라 3만원	김지연 3만원
	나형진 2만원	손향숙 2만원
	송애자 2만원	이영희 4만원
	전태일 4만원	진영덕 2만5천원
108석등	이창형 3만원	현미숙 3만원
원불봉안	김승한 1만원	김옥자 1만원

	남경순 2만원	백동근 1만원
	백미경 1만원	백미숙 1만원
	심향숙 3만원	양수한 4만원
	이현숙 4만원	최유자 3만원
	김금순 4만5천원	김점숙 2만원
	이현주 3만원	이호진 1만원
산신인등	권미연 5천원	권형식 5천원
	전성복 1만원	정영미 5천원
	차상근 5천원	
평생위패	고연숙 10만원	
대 불	조경희 5만원	
일 년 등	채영주 2만원	
기 타	심영선 1만5천원	김연자 1만원
	김재현 1만원	이관수 2만원
	전광환 1만원	정영석 5만원
	주석순 5천원	

법왕사 계좌번호

-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해오름 소식

녹색환경봉사단 봉사활동



녹색환경봉사단 단원 30명은 매월 셋째주에 해오름요양원을 방문, 봉사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귀한 시간 내어 봉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화여대 동창회 후원품 전달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을 비롯한 이화여대 동창회 대구지부 회원 일동께서 런닝 15벌, 찰떡 30팩, 치약 10개를 후원하셨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법왕사와 인연 있는 불자 어르신들이 입소하면 각종 혜택을 추가로 드릴 예정이니 주위에 널리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오름 게시판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1월)

수입내역

조규인 1만원	이원래 1만원	사공관 1만원
이점례 5천원	이성자 5천원	채옥연 5천원
배수현 2만원	여택동 5천원	이종희 5천원
안경순 1만원	장인숙 5천원	권오성 1만원
강태출 5천원	박창목 5천원	이현우 1만원
이은주 1만원	문정애 2만원	여축동 1만원
류윤만 5천원	노귀자 5천원	이정옥 1만원
정무시 1만원	김정임 1만원	권숙자 1만원
현영희 1만원	강영도 2만원	이정훈 1만원
심규암 5천원	김정자 5천원	김기수 2만원
구정대 2만원	김순태 1만원	김민주 1만원
김봉숙 5천원	박대희 5천원	이남희 1만원
안상준 2만원	강소남 5천원	김유진 1만원
유명옥 1만원	여축동 1만원	김기덕 2만원
이임숙 2만원	이병희 1만원	김순란 3만원
신구자 5천원	조영석 1만원	박학순 1만원
조용수 1만원	윤순희 1만원	김미옥 2만원
김수라 1만원	최분규 1만원	양나영 5천원
정광춘 5만원	신혜경 5천원	안명희 1만원
황미선 2만원	현인숙 1만원	노수정 1만원
권계화 1만원	장우성 1만원	김정순 3만원
정규성 1만원	박원태 1만5천원	이은희 5천원
무명 19,770원	한국장례문화 10만원	

합계 864,770원

지출내역

- CMS자동이체 수수료	66,000원
- 기저귀 구입	264,000원
- 세제구입	38,700원
- 컴퓨터 현상기 교체	151,000원
- 연료비 지급	110,000원
- 식재료 구입	203,190원

1월 총 사용내역 832,890원

잔액 1,340,864원 (2013년 1월말 기준)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품 후원자

정연화 : 기저귀 일차형 18개, 대형 21개

녹색환경봉사단 : 요플레 50개

김해자 : 사탕 1통

백복달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1Box

※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하신 물품과 후원금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윤말줄 어르신, 장말순 어르신

※ 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이효조

※ 해오름요양원 입소어르신을 내 부모님처럼 성심 성의껏 돌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해오름요양원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진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능기부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신청방법

- 전화접수 053-766-5767 담당 사무국장 강선옥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사무실(수성구 파동로 51길 96)

해오름 게시판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
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
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전화를 주시면 입소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
입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053)766-5767)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료,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
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법당 일년등 및 초파일 연등 동참 받습니다

연등은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찬탄하고 중생의 무명업장을 소멸하는 크나큰 공덕을 드러냅니다.
법왕사에서는 계사년 1년을 밝힐 법당 일년등, 가족등, 사업등, 영가등과 초파일 연등을 접수받고 있
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수희동참하시어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주위에도 널리 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등 10만원 이상

영가등 5만원 이상

사업등 20만원 이상

* 동참금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사업등에는 사업체 이름을 넣어 드립니다.



계 / 좌 / 번 / 호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수성못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이용을 바랍니다.

가창방면에서 신천좌안도로를 이용해 오시는 법우님들은 **상동교**에서 **유턴**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비게이션으로는 '파동초등학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신천대로 상동교, 신천동로 상동교,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 아파트, 수성못, 수성중학교, 파동초등학교, 용두교, 수성못오거리, 애망원, 애활원, 송원아파트, 우회도로, 공사중

신행단체 모임안내

신 장 회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산신기도회 매월(음) 16일 오후 4시

관 음 회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선우회(참선반) 매일 오후 7시~9시 주말 자유정진

인 등 회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지 장 회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합 창 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사 물 놀 이 매주 월, 목요일 오후 2시

부처님 출가에서 열반까지 제22회 팔상성도 대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3월 19일(음 2월 8일) 부처님 출가재일일 시작으로 26일 열반재일(음 2월 15일)까지 8일 동안 팔상성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개의 큰 주제로 나눈 팔상성도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나서서 열반에 드시기까지 중생구제를 위해 보이신 모든 행적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안 계시더라도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남기셨듯이 우리 불자들은 더욱 발심, 수행 정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입 재 3월 19일(음 2월 8일) 출가재일
-  회 향 3월 26일(음 2월 15일) 열반재일
-  시 간 오전 10시 법왕사(만불전 3층)

보살계수계법회 3월 19일(화) 혜능스님 전 해인사 올원장	비람강생상 3월 20일(수) 성담스님 효심사 주지	사문유관상 3월 21일(목) 지장스님 초의치명상선원장	유성출가상 3월 22일(금) 원광스님 동화사 교무국장
설산수도산 3월 23일(토) 현정스님 대원사 주지	수하항마상 3월 24일(일) 영석스님 전륜사 주지	녹원전법상 3월 25일(월) 지운스님 자비정사 주지	쌍림열반상 3월 26일(화) 본원스님 수덕사 주지

계사년 매월 양력 초하루, 음력 초하루 법회 봉행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8747 F. (053)767-6095